
2015년도 안성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터 키 -



안 성 시 의 회

|| 목 차 ||

I. 연 수 개 요	1
II. 주요 연수일정	3
III. 연수국가개요	5
IV. 주요방문지역	9
V. 부문별 연수성과	24
1. 터키의 지방자치제	24
2. 지역경제 분야 (재래시장 및 구시가지 활성화)	25
3. 문화·관광 분야	27
4. 도시환경교통 분야	30
5. 농업정책 분야	32
5.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33
VI. 연수를 마치며	36

2015년도 안성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대상 국가의 전통·재래시장 관리실태 및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이해와 농촌 관광마을, 각종 도시정책 등을 비교·견학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정에 접목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시책개발 아이디어 발굴의 기회로 활용하며,
- 선진 관광도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유적, 관광인프라시스템 등을 시찰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 구현을 위한 우수사례 도입방안 강구 및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함.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5. 9. 17 ~ 9. 25 (7박 9일)
- 연수인원 : 12명
(의원 5명, 의회사무과 5명, 집행부 1명, 상공회의소 1명)
- 연수국가 : 터키
- 주요연수내용
 - 그랜드바자르, 콘야 · 안탈리아 구시가지 및 전통시장 방문
 - 카파토키아, 이스탄불, 안탈리아 등 관광문화 정책 체험
(괴뢰메 야외박물관, 데린쿠유,파묵칼레, 에페소 고도 도시유적, 아야소피아성당, 보스포러스 해협 등)
 - 이스탄불 시청, 아바노스 시청, 파티흐 구의회 방문
 - 터키 각 도시별 시가지 도시관리 현황 파악

연 수 목 표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비교·견학함으로써 조화로운 도시정책 개발
- 아름다운 농촌 관광마을 방문을 통하여 농촌관광상품 개발
- 문화·예술·유적을 시찰하여 문화예술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 함양

연수 참가자 현황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	안성시의회	의 장	유 광 철	
2	“	운영위원장	안 정 열	
3	“	의 원	권 혁 진	
4	“	의 원	신 원 주	
5	“	의 원	조 성 숙	
6	의회사무과	과 장	박 영 석	
7	“	전문위원	박 상 호	
8	“	행정 7급	장 대 원	
9	“	시설 7급	최 유 빈	
10	“	운전 8급	박 진 홍	
11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장	최 승 린	
12	안성상공회의소	경영기획팀장	손 정 희	

II

주요 연수일정

일 자	여 행 지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제 1일 9/17 (목)	인 천 이스탄불	OZ 551 전용차량	07:00 09:00 10:20 16:1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인천국제공항 출발 (약 12시간) · 이스탄불 국제공항 도착 · 석식 후 호텔투숙
제 2일 9/18 (금)	이스탄불 카이세리 가파도키아	전용차량 TK2014 전용차량	10:00 16:00 1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이스탄불 파티흐 구의회 공식방문 · 이스탄불 출발 · 카이세리 도착하여 가파도키아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제 3일 9/19 (토)	가파도키아 콘 야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파도키아 열기구 관광상품 체험 · 가파도키아 “아바노스 시청” 공식방문 · 고대 문화유산 “괴뢰메 야외박물관 ” 견학 · 지하도시 “데린쿠유 견학” · 콘야 이용(4시간 30분) · 콘야 “재래시장” 공식방문 · 석식 후 호텔 투숙
제 4일 9/20 (일)	콘 야 아스펜도스 안 탈 라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탈라 이동(304KM ,약 5시간 소요) · 아스펜도스 “ 원형극장 ” 유적 견학 · 안탈라 “재래시장” 공식방문 · 고대 문화유산 “하드리안의 문” 견학 · 석식 후 호텔 투숙

일 자	여 행 지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제 5일 9/21 (월)	안 탈 라 파 목칼 레	전용차량	전일 12:00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안탈라 구시가지 등 지역방문</u> · “카라알리오올루 공원 및 이블리탑 등 안탈라 지역 방문 · 파목칼레 이동(4시간 30분) · 고대 도시 유적 “히에라폴리스” 견학 · 석식 후 호텔 투숙
제 6일 9/22 (화)	파목칼레 이즈밀 이스탄불	전용차량 PC2816	전일 18:05 1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페소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 고대 도시유적 “원형극장, 켈수스 도서관 및 히드리아누스 신전” 견학 · 아름다운 농촌마을 “쉬린제” 공식방문 · 이즈밀 공항으로 이동 · 이스탄불 도착 · 석식 및 호텔 투숙
제 7일 09/23 (수)	이스탄불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그랜드 바자르” 전통시장 공식방문</u> · “돌마바흐체 궁전”, “술탄아흐멧 사원”, “툽카프 궁전”, “지하 물 저장고”, “아야 성소피아성당” 견학 · 석식 후 호텔 투숙
제 8일 09/24 (수)	이스탄불	전용차량 OZ552	전일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이스탄불 시청 공식방문</u> · “보스포러스 해협”, “이스탄불 시가지” 견학 ·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이동 · 이스탄불 출발 / 인천 향발
제 9일 09/25 (목)	인 천		0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후 해산

III

연수국가 개요

※ 자료 : KOREA 국가정보, 두산백과, 저스트고국가별 여행정보



터 키 [Republic of Turkey]



- 수 도 : Ankara시(약 440만명)
- 인 구 : 약 81,619,392명 세계16위
- 면 적 : 783,562km²(남한의 7.8배)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해안). 대륙성 기후(내륙)
- G D P : 7,525억\$ 세계17위
- 화 폐 : 터키 리라(TL)
- 주요도시 : 이스탄불(1,385만), 앙카라(496만), 이즈밀(400만), 브루사(268만), 아다나(212만)
- 민 족 : 터키계(86%), 쿠르드계(9%), 아랍인(36만 명), 아르메니아인(5만 명), 소수의 유대인 등
- 주요언어 :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 종 교 : 이슬람교(98%, 수니파 다수), 기타(2%, 개신교, 천주교 및 유대교)

□ 지리적 특성

- 터키의 전체 면적은 77만 9,452km²(한반도의 3.5배)로 아시아 대륙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고, 유럽 대륙의 동남부와 연결되어 있다. 흑해(Black Sea), 마르마라해(Sea of Marmara), 에게해(Aegean Sea)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Bosporus) 해협과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에 의하여 유럽에 속하는 트레이스(Trace) 반도와 아시아에 속하는 아나톨리아(Anatolia) 반도로 구분된다.
- 트레이스 반도의 면적은 2만 3,764km²로 터키 전체 면적의 3%를 차지하고 아나톨리아 반도의 면적은 75만 5,688km²로 터키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한다.
- 기후는 해양지방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여름-고온건조, 겨울-온화다습)로 연평균18~20℃로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내륙 지역은 대륙성 기후(여름-고온건조, 겨울-눈이 많이 내림)로 겨울 평균 0~10℃로 봄가을이 짧고 건조하며 일교차가 심하다.

□ 사회·문화

-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터키인들은 수세기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왔다. 그러면서 동서양의 특징을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에 적용해 왔다. 터키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위계질서를 중요시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중시하며 무사 기질을 존중한다.
- 터키의 공용어는 터키어이고 일부 지역 및 공영방송국에서는 아랍어, 보스니아어, 쿠르두어 등을 사용하고 있고 전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수니파 다수, 시아파 소수)이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일부 기독교, 유대교, 그리스정교 등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 터키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무료이며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을 치른 후 합격한 사람만이 진학할 수 있다. 터키에는 169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오래된 대학은 1453년에 설립된 이스탄불(Istanbul) 대학이다

□ 정치 형태

- 터키는 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를 병행하고 있다. 5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각료회의는 총리, 총리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장관(State Minister) 및 각 부처 장관(Minister)들로 구성된다.
- 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접선출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통상 다수당 당수를 임명)한 후 국회의 신임투표를 받는다. 총리가 모든 행정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터키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국회 연설권, 국회 소집권,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회부권, 각료회의와 국가안보회의 주재,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을 갖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이 단순한 상징적 존재 이상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을 갖고 있으므로 터키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라고 볼 수 있다.

□ 터키의 경제

- 터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광활한 영토에서 사시사철 먹거리가 풍족하게 나오는 천혜의 땅이지만,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은 부족하며 경제적으로도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 1963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가 시작되었지만 국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 분야보다 식·음료업, 섬유, 피혁 가공업 등 경공업 분야가 발달되어 있다.
- 하지만 전 국토에 퍼져 있는 역사 유적에는 비교적 관광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매년 관광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가전 산업도 세계적인 대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한국-터키 무역

- 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확대되어왔고 2012년 기준으로 터키는 한국의 11위의 무역 흑자국으로 흑자 규모는 22억 달러이다.
- 10대 품목 중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수출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와 철도차량, 승용차,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있고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및 철강, 의류, 가죽, 자동차부품 등이 있다.

□ 터키의 국민성

- 터키 국민은 오스만 제국의 영광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히 크며, 6·25 전쟁참전으로 맺은 인연으로 인하여, 한국인을 '코렐리'(Koreli)라고 부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제발생시 적극 도와주려 한다. 전통적으로 체면과 무예를 존중하며, 매우 정열적이고 다혈질이나 서두르지 않으며, 신앙의 전사(戰士)라고 불리는 가지(Gazi)의 정신을 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터키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동서양의 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VI 주요 방문 지역

이스탄불 / 9월 18일

● 파티흐 의회(Fatih Parlamento) 방문

- 파티흐는 오스만 황제 파티 흐 술탄 메 머드(정복자)에서 유래되었다. 파티흐 구의 인구는 50만명이고 관광객 및 출퇴근자 등 유동인구가 하루평균 150만명으로 오스만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블루모스크, 아야 성소피아 등이 있다. 의회는 민선이며 임기 5년의 37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된다(연 3회 개회). 시의 예산 승인, 세액 결정, 도시계획과 공공사업 승인 등의 일을 한다.



가파도키아 / 9월 19일

-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카파도키아는 ‘아름다운 말(馬)이 있는 곳’이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되었다. 카파도키아는 수억년 전의 화산분화 후 오랜시간 침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암괴석 등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지상과 지하에서 인간이 삶의 터전으로 마련한 도시와 마을, 교회가 하나의 조화로운 복합구조를 이루는 곳으로 영화 <혹성탈출>의 촬영지와 <‘개구장이 스머프’>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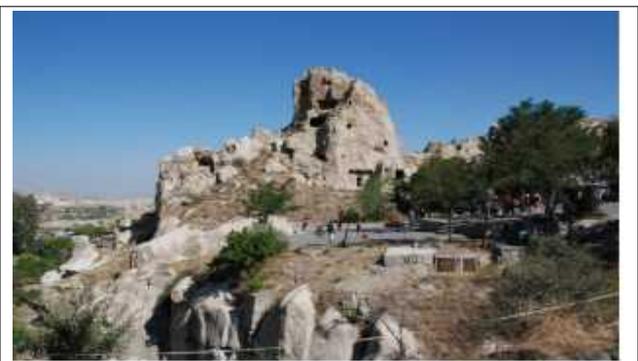
◎ 가파도키아 “아바노스 시청(Avanos Belediyesi)” 방문

- 아바노스 시는 13만 6천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지역으로 인구의 90%가 도자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데린쿠유 지하 도시, 괴뢰메 골짜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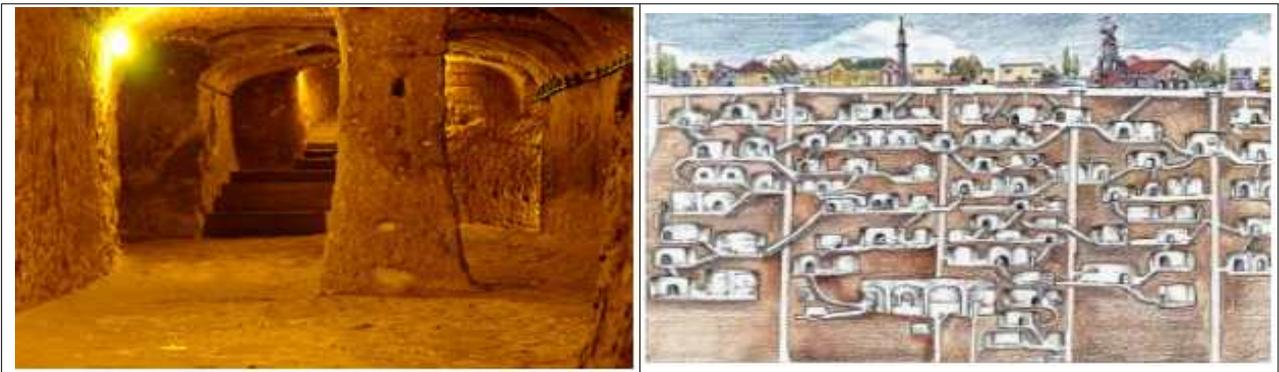
◎ 괴레메 골짜기(Goreme)

- 지상으로 나있는 바위 동굴 속에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다. 3개의 본당으로 이루어진 이 곳의 교회들 대부분은 건축시기가 9세기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의 벽면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등 성서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려진 성화로 장식되어 있다.



◎ 데린쿠유 지하도시(Derinkuyu of Cappadocia)

-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 데린쿠유는 개미굴처럼 지하 곳곳으로 파내려간 대규모 지하 도시로 총 깊이가 55m에 달하는 8층으로 이루어졌다. 한때 아랍인들로부터 도피한 기독교인들이 거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부 통로와 환기구가 지하 각층으로 연결돼 있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침실, 부엌, 우물 등이 존재한다. 적의 침입에 대비해 둥근 바퀴모양의 돌덩이를 통로마다 설치해 비상시 통로를 막았고 독특한 기호로 길을 표시해 외부에서 침입한 자는 길을 잃도록 미로처럼 여러 갈래의 통로를 뚫어 놓았다.



콘 야 / 9월 19일

이슬람의 한 종파인 메비레비의 종교춤 '세마'의 근거지로 유명한 콘야는 터키 중부 코니아주의 주도로 인구는 약 110만명이며 밀 · 보리 · 야채 · 양모 등 농목산업과 양탄자 · 본건 · 피혁 · 면제품 등으로 유명하다.

◎ 콘야 시가지 및 재래시장

- 터키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지역특산물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조화롭게 형성되었고,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안탈리아 / 9월 20, 21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안탈리아의 주도로 인구는 약 80만명이며 지중해 어획물과 감귤, 올리브, 바나나 등 농업생산이 활발하다. 양잠업 거래의 중심으로 경공업이 발달되었고 고대 헬레니즘과 비잔틴 유적, 로마시대의 유적, 셀주크 왕조, 오스만 제국의 건축물 등 다양한 역사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 아스펜도스 “ 원형극장 ”

- 1만 5000명이 넘는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의 거대한 원형극장으로 로마식 극장 가운데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고 객석 형태는 반원꼴이다. 이 지역 출신의 건축가인 제논(Xenon)이 설계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 극장의 완벽한 음향효과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음향효과가 뛰어나 현재에도 공연장으로 이용 중이다.



● 안탈리아 구시가지, 전통시장 “올드 바자르(Old Bazaar)”

- 터키의 관광 수도로 꼽히는 곳으로 아자나무 가로수가 그늘을 만드는 넓은 도로와 오밀조밀한 목조 가옥과 골목길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 관광 상품점 등이 들어서 있다. 구시가지에 위치한 올드바자르(Old Bazaar)는 관광객들을 위한 작은 시장으로 우리의 전통시장과 그리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향신료 가게, 터키문양의 조명, 디저트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 하드리아안의 문(Hadrian Gate of Antalya)



로마황제인 하드리아누스 2세의 방문을 기념으로 세워진 문이다. 구 시가지로 들어서는 메인 게이트로 문이 3개의 아치로 되어 쓰리게이트(The Three Gates)라고도 한다

◎ 카라알리오올루 공원

- 안탈리아의 대표 공원으로 칼레이치 구역의 바닷가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변공원으로 전경이 아름다워 여행객들이 기념촬영을 하러 많이 찾는 곳으로 공원 입구에는 2세기경 세운 호드르륵탑, 성채, 각종 스포츠 시설이 있어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다.



● 이블리탑



- 안탈리아의 상징이자 안탈리아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첨탑으로, 셀주크 왕조의 카이크바드 1세가 세웠다. 높이가 38m에 이른다. 탑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이블리 사원이다. 이 사원도 터키의

다른 사원과 마찬가지로 비잔틴 제국 때는 교회로 쓰였으나 셀주크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묵칼레 / 9월 21일

● 파묵칼레

- 터키 남서부 데니즐리(Denizli) 주에 위치한 파묵칼레는 터키어로 ‘목화의 성’이라는 뜻으로 경사면을 흐르는 온천수가 빚어낸 장관을 이루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석회성분을 다량 함유한 이곳의 온천수는 류머티즘, 피부병, 심장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치료와 휴식을 위해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최고의 휴양지이다.



◎ 히에라폴리스리스

- 히에라폴리스는 파묵칼레의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도시다. 기원전 2세기경 페르가몬 왕국에 의해 처음 세워졌고 기원전 130년에 이곳을 정복한 로마인은 이 도시를 ‘성스러운 도시(히에라폴리스)’라고 불렀다.
- 이곳은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신전, 공동묘지, 온천욕장 등 귀중한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원형극장은 최대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1200기의 무덤이 남아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도 있다. 테르메라고 하는 온천욕장은 온욕실과 냉욕실은 물론 스팀으로 사우나를 할 수 있는 방, 대규모 운동시설, 호텔과 같은 귀빈실, 완벽한 배수로와 환기장치까지 갖추고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유적을 동시에 갖춘 이곳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복합)으로 지정되었다.



셀주크(에페소) / 9월 22일

터키 이즈미르의 남서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하였고 에페수스는 초기 기독교의 발전과 관련이 많은 도시로 기원전 900년경에 이오니아인들의 식민도시가 된 뒤 로마시대에 이르러 번영하였고 BC 6세기 후반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이 고대 도시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대형극장, 각종 신전, 김나지움(gymnasium, 연무장(演武場)), 성마리아 교회, 넓은 가도, 아고라, 도서관 등 여러가지 유적과 더불어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 에페소 유적지내 원형극장(Amphitheater at Ephesus Site)

- 파나 유르산 언덕에 지어진 야외극장으로 헬레니즘시대에 처음 건설되었으나 로마시대에 각 부분이 확장되어 무대에서 극장 꼭대기까지 2만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로 웅장하다. 에게 해 인근에서 가장 큰 극장이다.



◎ 켈수스 도서관(Celsus Library), 하드리아누스 신전(Hadrianu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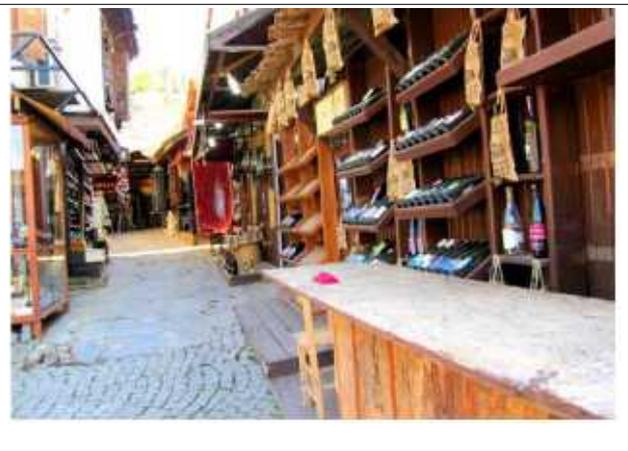
- 에페소의 유적지 건축물로 지금은 많이 훼손되어 도서관은 앞부분만 남아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자 아시아 주의 총독이었던 독서광 켈수스 폴레마이아누스를 기리기 위해 그의 아들 율리우스 아퀼리아가 지은 웅장한 무덤과 도서관이 통합된 건물이다. 고대 세계 전역에서 걸출한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1만 2천 권에서 1만 5천 권에 달하는 두루마리들을 연구했다고 한다. 1800년대에 에페소스에서 대규모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이곳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다.



◎ 시린제 마을

에페소스(Ephesos) 지역에 거주하던 그리스인들이 15세기 무렵에 이주해와 형성한 마을이다. 현재 주민은 약 600명이며, 대부분이 그리스계이다. 셀추크의 '와인마을'로 알려져 있다.

산비탈을 따라 조성된 마을의 모든 건물이 흰 회벽에 붉은 기와 지붕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풍으로 꾸며져 있다. 특산물로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올리브 제품, 포도주, 포도, 사과, 복숭아를 이용한 과실주, 수공예 레이스 등이 있다.



이stanbul / 9월 23일

◎ 이stanbul 시청(Istanbul Büyükşehir Belediyesi)

- 1923년까지 1600년간 수도였던 이stanbul은 보스포러스 해협의 남쪽 입구에 위치한 터키 최대의 도시로 면적은 5,712km²이고 인구는 약 1,278만 명이다. 금융, 산업 및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1985년 이stanbul 구도시 지역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시장은 투표로 뽑고 임기는 5년이다. 시의회는 민선이며 임기 5년의 14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연 3회 개회). 시의 예산 승인, 세액 결정, 도시계획과 공공사업 승인 등의 일을 한다. 주지사(Governor)는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경찰과 시장이 결정한 예산 및 계획의 수정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및 이스탄불 시가지

- 이스탄불 구시가에 위치한 대규모 재래시장. 터키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터키어로 카파르 차르쉬(지붕이 있는 시장이라는 뜻)라고 불리는 그랜드 바자르는 15세기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 문물을 거래하던 시장에서 시작되어 역사적으로 이스탄불의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1455부터 1461년에 걸쳐 이스탄불은 도시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아케이드를 마련하고 더욱 활발한 상업 활동을 장려했다. 그 결과 점차 시장의 규모가 커져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장을 보러 나온 현지인들과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 미로처럼 복잡하게 교차된 골목을 따라 늘어선 점포의 수가 약 4500개에 달하고 성문처럼 생긴 입구가 18군데가 있다. 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은 금은 세공품, 보석, 카펫, 향신료, 의류, 가죽 제품, 옷감, 생활 잡화, 골동품 등이다. 종류별로 구역이 나뉘어 비슷한 가게들을 둘러보며 품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시장 안팎으로 다양한 식당과 카페도 자리한다.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품목은 전통 수공예품과 터키 커피, 로쿰(터키식 젤리) 등이 있다.



- ◎ **히포드롬(Hippodrom)과 오벨리스크, 뱀기둥, 콘스탄티누스의 탑**
 - 아히포드롬은 로마시대 대전차 경기장으로 사용된 역사적인 곳이다. 가로 117m, 세로 500m인 U자 형 원형 경기장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 개의 기둥(오벨리스크, 청동제 뱀기둥, 콘스탄티누스의 탑)이 서 있었다.
 - 이집트 룩소, 카르낙 신전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BC 15세기 투트모스 3세)는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이스탄불로 옮겨진 것으로 사각기둥 모양을 하고 있다. 25.6m의 고대 이집트 기념비로 상형문자 부조가 새겨져 있다.
 - 8m밖에 안되는 청동 뱀기둥은 그리스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서 BC 479년 페르시아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가져온 것으로 머리부분은 박물관에 소장중이다.
 - 콘스탄티누스의 탑은 원래 청동으로 잘 꾸며져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 때 약탈당해서 지금은 석탑의 형태만 남겨져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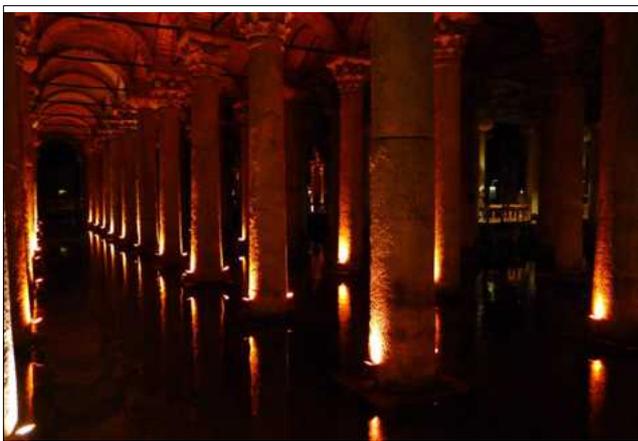
- ◎ **술탄아흐멧 사원(블루모스크)**
 - 터키를 대표하는 사원이며, 사원 내부의 벽과 기둥이 파란색과 녹색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 불리고 있다. 아야소피아의 남쪽 편에 약 2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우뚝 서 있는 첨탑 6개는 술탄의 권력을 상징하며, 이슬람교도가 지키는 1일 5회의 기도를 뜻하기도 한다. 돔의 200개를 넘는 조그만 창에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장식되어 아름답고 사원 앞의 정원에는 언제나 화사한 꽃이 피어 있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 콘스탄티노플의 에레비탄 지하 물탱크(Yerebatan Cistern)

- 6세기 비잔틴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건설했다. 336개에 달하는 돌기둥(높이 8m)으로 지탱되고 있는 길이 140m, 폭 70m 지하 저수지로, 비잔틴 시대부터 외적의 침입 등으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옛이름)이 포위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을 저장해놓던 곳이다. 현재는 관광객을 위하여 저수는 하지 않으나 바닥에는 계속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나무 받침대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를 조성하였고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신비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 톱카프 궁전(Topkapi Pa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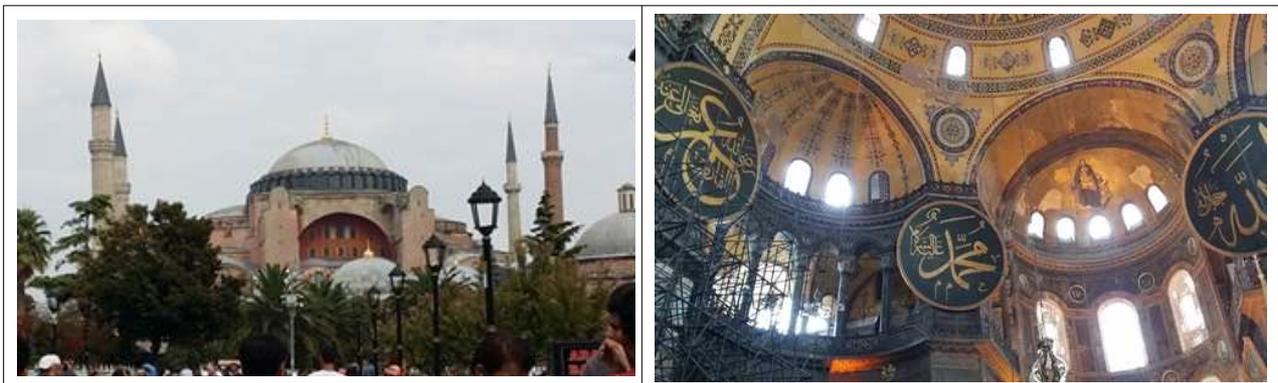
- 이슬람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톱카프 궁전은 1453년 오스만제국의 메흐메드가 건설을 시작해 1467년 메흐메드 2세 때 완공되었다. 궁전

내부는 정원 4개와 부속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400여 년 동안 계속된 증·개축으로 오스만 건축 양식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다. 궁전 내부에는 술탄에게 보내온 각국의 보물과 도자기, 술탄의 식기, 의복, 장신구,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황금과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톱카프의 단검’이 유명하다. 골든 혼과 보스포러스 해협, 마르마라 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다.



◎ 성소피아 성당(The Hagia Sophia Museum)

- 오늘날 비잔틴미술의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는 아야소피아 성당은 비잔틴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532~537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세운 성당이다. 아야소피아 성당은 '신성한 지혜의 교회'라고도 하며 그리스 정교의 중심이었다. 로마의 아치 기술과 동방의 돔형 건축 기술을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아야소피아는 1453년 뒤부터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박물관이 되었다. 설계자는 트랄레스의 안테미오스와 밀레토스의 이시도도스이다. 지름 31미터, 높이 54미터의 돔을 중심으로 하여 내부는 모자이크와 대리석으로 덮여 있어 화려하다.



◎ 돌마바흐체 궁전

- 이스탄불 신시가지 쪽 보스포러스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를 메워서 간척한 곳에 세웠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제31대 술탄 압둘마지드가 1853년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본떠 지은 유럽풍 궁전으로 19세기 구시가지가 쇠락해 감에 따라 제2의 궁전으로 건축된 것인데 그 호화로움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사치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궁전은 터키공화국의 건설자인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1938년 집무 중 사망한 이후로는 박물관으로 개장하고 있다.



◎ 보스포러스 해협

-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스탄불의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의 동쪽이 아시아, 서쪽이 유럽이다. 유럽 지역은 보스포러스 해협의 출구인 골든 혼을 기준으로 다시 남쪽의 구시가지와 북쪽의 신시가지로 나뉜다.
- 이 해협은 예로부터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다. 흑해와 지중해,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수로로서 지리적 가치가 높아 중세의 교통로와 무역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길이 약 30km, 폭이 가장 좁은 지점은 약 600m에 불과한 작은 바다로 양쪽 기슭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가 매우 인상적이다. 돌마바흐체 궁전, 루멜리 히사르 요새 등 이스탄불의 유서 깊은

건축물들과 고급 주택, 오래된 목조 별장이 늘어서 있다. 보스포러스 해협의 푸른 물결을 가르며 이스탄불의 시가지를 둘러보는 보스포러스 크루즈 투어가 특히 인기가 있다.



V

부문별 연수성과

1. 터키 지방자치 체제

-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터키의 행정구역은 81개 주(Province)와 695개 군(District), 35,855개의 면(Sub-District)로 나뉘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민선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시(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 이 밖에 전국적으로 34,974개의 리(Village)가 있으며, 촌락의 이장(Headman)과 의회(Council of Elders) 의원은 민선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 가운데서 선출함. 시에는 통이 있으며, 통장 또한 민선임.
- 의회는 민선으로 임기 5년이고 시의 예산승인, 세액결정, 도시계획과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담당하는데 사실상 내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주지사가 경찰과 시장이 결정한 예산과 계획의 수정 등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의 발전과제

- 파티흐 구청 방문 시 로비에 관공서 업무를 시민들을 위해 안락한 의자를 마련하고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음.
- 안성시민들이 시청에 편안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시청 환경조성

2. 지역경제분야(재래시장 및 구시가지 활성화)

□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녹아든 지역의 특색 부각

- 오스만 터키 시대인 18세기의 농촌모습을 고스란이 가지고 있는 쉬린제 마을은 그 지역만의 특색과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만든 와인등 과일주, 수공예 작품 등을 관광상품화하였고, 카파도키아의 경우 기암괴석, 버섯모양 암석 모양을 본 뜬 장식품과 열쇠고리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켰다.



□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 그랜드바자르는 이스탄불 구시가에 위치한 대규모 재래시장으로 터키의 전통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그랜드 바자르는 무역의 중심지인 이스탄불 구시가지에 위치하여 시장이 번성하기에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인들과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 이곳에 씌어진 아케이드는 1455부터 1461년에 걸쳐 이스탄불은 도시의 번영을 유지하고 더욱 왕성한 상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간판하나하나도 각 라인의 특성에 맞게 일치하였으며 수백 년이 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이용객들이 활발히 이용하는 공간이다.
- 우리가 방문한 시간은 오전 9시정도로 대부분의 가게가 장사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상인들 스스로가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시장이라 치안유지를 위해 각 문의 출입구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있는 콘텐츠

- 안탈리아 재래시장의 우산이나 카파도키아 동굴음식점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 특히 이런 콘텐츠들은 볼거리 먹거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여형 공연을 연계하여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같이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우리의 발전과제

- 3대 장터였던 우리시의 옛장터 복원하고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대도시민들에게 향수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장자체를 관광지화
 - 칠장사, 죽주산성 등 볼거리와 5대 농특산물, 안성유기 등 살거리, 안성한우 등 먹거리, 유별난 마을, 미리내 마을 등 놀거리 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재래시장과 연계한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
- 시장전문가 육성 및 차별화된 재래시장 마케팅
 - 시장내 이해 당사자들간 의사소통과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시장전문가 육성과 재래시장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 유통관리의 투명화 · 실명화로 전통시장 신뢰회복
 - 재래시장은 대형유통매장에 비해 유통관리가 부족하고 원산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바 우리시가 인증하는 시장 판매제품 유통관리 체계 개선 및 실명화로 신뢰받는 전통시장으로 이미지 제고
- 고객센터 및 위생적인 시장 환경조성
 -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고객 센터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장 환경조성

3. 문화·관광 분야

□ 시설물 설치 최소화

- 터키는 문화 및 역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시설물의 설치가 최소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것이 화장실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관광지에 가더라도 깨끗한 화장실이 완비되어 있지만 터키는 트레킹, 투어로드 등에도 별도의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이러한 그들의 문화유산 보전정책으로 자연경과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다소 불편하지만 힐링의 장소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는 이야기에 우리의 관광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 역사·문화자원 보호 철저

- 터키는 오랜 역사를 말해주 듯 다양하고 많은 문화재 곳곳에 산재해 있어 모든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고고학자 및 역사학자들의 검토를 통해 개발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고 개발로 인한 문화재 및 역사유물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는 개발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 이런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이 우리나라 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우리의 역사·문화자원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 카파도키아는 동굴을 공연장 및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식사나 음료를 하면서 “벨리댄스”공연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였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열기구 투어나 사파리 투어와 같은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광상품은 동이 트기 전에 이루어지는 열기구투어, 낮에 이루어지는 사파리 박물관 투어, 해질무렵 이루어지는 벨리 투어 등시간대별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 관광산업에 주민참여 활발

- 터키는 외지인에 대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보다는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생계형 관광산업이 많다. 특히 숙박의 경우 실제 주인이 거주하면서 남은 방을 제공하는 펜션의 형태가 발달되어 있었고 관광지내 대규모 기념품 판매장보다는 소규모 상점이 즐비하여 형성되어 있었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관광지 내 이용편의시설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스탄티노플의 에레비탄 지하 물탱크(Yerebatan Cistern)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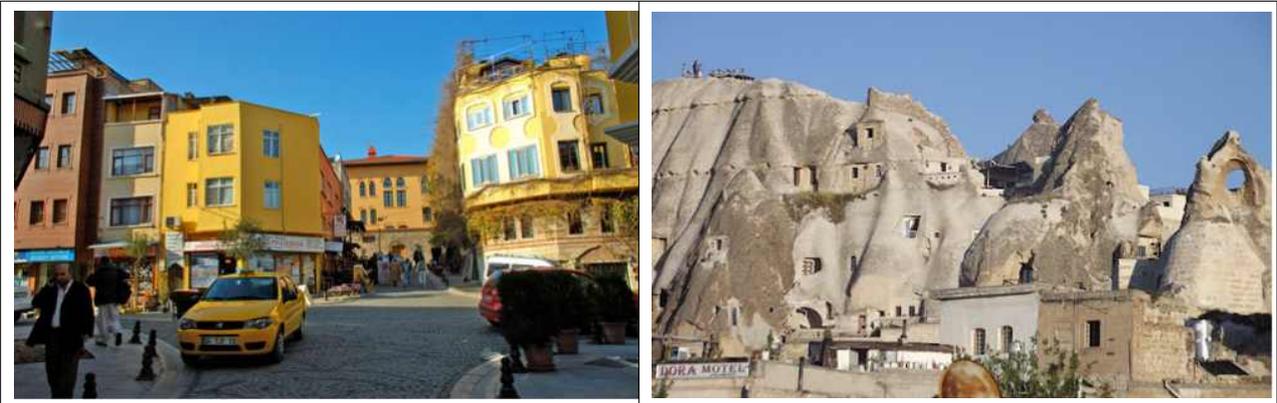
□ 우리의 발전과제

-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지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오히려 문화재 및 역사유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역사·문화자원 보전·보호하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하는 관광상품과 비수기와 성수기,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우리시는 당일에 끝나는 시티투어가 있으나 1박 2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지역상품 판매점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관광지 내 이용편의시설 설치
 - 비어리프리 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편의 시설을 설치

4. 도시환경교통분야

□ 신규건축보다 기존 건물 최대한 활용

- 도시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있으며 신규건물보다 이러한 과거의 건축물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최소한의 보수를 거쳐 다른 용도로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도심지역에서는 과거의 건축물과 현대의 주거문화가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으며, 기암이 많은 곳에서는 기암과 지형적 여건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주택으로 활용하였다.
- 그 결과 과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만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함으로써 그 장소가 지니는 역사적 사건 등을 알리는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건축물의 규모, 색채 등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



□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 광장 및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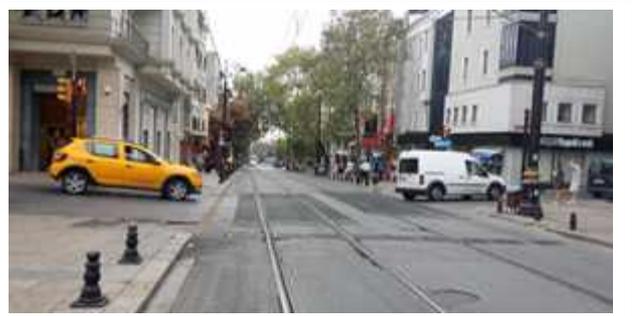
- 터키의 도시주변은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넓은 광장이 있고 다양한 상징조형물과 꽃과 나무, 잔디 등의 조경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안락한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 블루모스크와 아야소피아광장 사이에 있는 히포드롬 광장에는 우리나라의 청소차보다 규모가 작은 청소가 수시로 광장과 공원인근을 다니며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심 공원 내 다중이 출입하는 장소에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어 유사시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 공원은 물론 도시내 자전거를 통한 이동 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 광장내 포장은 유지·보수가 쉽고 세련된 도시미관을 형성하도록 석재 보드블록으로 포장하였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많이 두지 않아 사회적 약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조성하였고 도심에서는 속도를 줄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광장 및 공원

- 교통체증이 심한 터키는 러시아워에 교통지설도 무질서하고 체증이 심각할 수 있는 직선형 교차로 시스템이 아닌 원형(로터리) 및 입체 교차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주택가 인근은 대부분은 일반통행으로 형성되어 있다.
- 터키 도심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지상전철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일반 차도를 따라 지상전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 주차장과 보행자간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이스탄불 구시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 우리의 발전과제

○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 우리나라는 급속한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시 역시 옥천동, 성남동 일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재개발에 대한 주민제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재개발은 그 도시만이 가진 장소적인 특성과 매력을 훼손할 수 있고 고층고밀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터키와 같이 최소한의 보수로 도심의 기능을 활력화시키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5. 농업정책 분야

□ 터키와 농업협력 및 농기계 수출 시장 확대

- 터키는 농업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하는 넓은 영토와 지중해성 아열대 기후를 이용하여 농업분야에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 터키의 식량자급률은 100%를 초과하지만 터키의 농산물 교역은 국가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성과 품질면에서 주변국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단순 농산물을 채취하는데 그치고 있다.



□ 우리의 발전과제

○ 터키와의 농업협력으로 미래 식량안보 확보

-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터키를 농업협력과 교육을 통해 미래 식량안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력이 필요함.

○ 농업관련 제품 수출방안 마련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터키에도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좋은 품질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갖춰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 시장을 확대하여야 함.

6.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 친환경 교통수단 바이모달 트램

-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터키에서는 트램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터키의 트램은 구시가지 뿐만 아니라 현대적 건물이 있는 신시가지까지 고전적 멋을 더하고 있고 그냥 도로 위에 레일만 깔아 설치가 용이하고 건설비 및 운영비 등 비용면에서 우수하며 화석 연료 대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다 보니 친환경적이다. 우리나라 현대차그룹 로템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안탈리아에 트램(18편성)을 수주하였다.



□ 친환경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터키

- 글로벌 관광지 이스탄불은 환경 관리를 위해 도시 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1만 7천여 톤의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매년 시간당 3천4백만 킬로와트(kilowatt)의 유해 가스를 배출하는 고품 생활 쓰레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80만 가구에 공급하고 있고 매년 2만 톤의 비용을 생산해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에 사용하고 있다
- 대형 쇼핑몰 및 건물에는 옥상녹화를 하여 건축물의 단열 도심 홍수 방재, 생물다양성 증진, 열섬현상 완화,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고 도로 주변에는 벽면녹화사업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 대체에너지 정책

- 터키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약 3만 600MW의 에너지를 생활 할 수 있는 수력자원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고 전략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에너지 허브국가로 거듭나고 있으며 에너지 장려금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 특히 연중 일조량이 총 2,640시간으로 하루 평균 7.3시간 이상으로 태양열 에너지에 매우 적합한 환경으로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리아, 카파도키아 전역의 많은 주택과 호텔, 상업건물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온수를 데우는 태양열 에너지 자가발전 시스템을 통한 가정용 온수기기 분야가 활발하였다.
- 또한 지열, 수력, 풍력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우리시의 발전과제

- 자연친화적 안성시의 정책방안 마련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시 역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탄소저감 방안에 대한 지속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민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실천전략 및 교육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자원확보장안 강구
 - 우리나라는 자원 빈약국으로 특히 석유나 가스등 주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및 자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우리 연수단은 터키를 대상국으로 하여 연수를 하였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 한반도의 3.5배인 넓은 영토와 비옥한 토지,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 등 발전 잠재력이 많은 나라이다.
- 터키를 ‘인류 문명의 거대한 박물관’이라 말했던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오스만제국에 이르는 역사 유산과 문명 그리고 그 속에 혼재되어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두가지 문화, 오랜세월을 버티며 풍화된 기암들과 종교박해의 피신처로 알려진 동굴교회의 자연과 역사의 위대함 등은 세계 각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였다.
- 그들은 유구한 역사문화를 보전하고, 이를 후세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 주려는 노력과 함께 그들이 가진 자연과 문화유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특히 이러한 관광 정책들이 외지인에 의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방식보다는 국가 주도로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생계형 관광산업과 관광지와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터키의 지역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았고 이를 우리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끝으로 이런 뜻 깊은 기회와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수보고를 마치고자 한다.